로컬플러스

군산해경, 침몰 어선 선원 전원 구조

해경이 신속한 대처로 침몰 중이던 어선에서 선원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3일 오전 3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동쪽 약38㎞ 해상에서 좌초로 인해 침수 중이던 어선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를 받은 해경은 선원 전원에게 구명조끼 착용과 가까운 갯바위에 내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경비임무 중이던 함정 3척과 구조대를 현장으로 급파하고 대기함정에 비상출동 지시를 내렸다.

신고접수 30분 후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구조를 기다리던 선원들을 갯바위에서 경비함정으로 옮겨 태우고 개별 건강상태를 점검했으나,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문정곤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군산 신청사 준공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지사장 임우순)이 15년간의 익산시 목천동 시대를 마감하고 오늘부터 군산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군산지사는 농조와 농기공(현 한국농어촌공사), 농조연합회가 분리됐던 시절 익산 평화동에 있던 전북농조가 96년 신청사로 세웠던 목천동 현 청사는 2000년 3개 기관이 통합되며 농어촌기반공사 군산지사 청사로 활용되어 왔다.

군산과 익산 및 완주 일부를 관할하던 군산지사 업무가 2004년 군산시 지역으로 제한 조정됐으나 지사는 여전히 익산시 목천동에 위치, 군산 농민을 중심으로 이전요구가 갈수록 증대됐다.

이에 따라 군산지사는 지난 2014년 2월 옥산면 옥산리 옥산농협 인근 부지에 면적 5104㎡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64여억원을 들여 신축청사를 마련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해수청 간담회 개최 군산항 활성화 방안 논의

최근 군산지역 경제불황과 대기업 인원감축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지난 13일 군산시와 군산해수청 이 군산항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군산시장과 항만물류과장, 군산해수청장과 간부진 등이 정보공유를 통해 군산항 현안사업과 군산항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국비 1,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비응항 정온도 개선사업, 군산항 야적장 포장공사 등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문정곤기자

새만금산단 석탄재 반입 논란 해명

새만금 개발청, "준설토만 매립하는 경우보다 지반개량 시간 단축"

새만금개발청이 최근 새만금산단 3공구 석탄재 반입으로 새만금을 폐기물 매립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법령에 따르면 석탄재는 일반토사류 등과 혼합해 성토·복토용·배수층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군산항 하류지역 준설토는 점토성분이 많아 석탄재를 혼합해 사용하면 준설토만 매립하는 경우보다 지반개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서천화력발전소의 석탄재를 매립토로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군산대학교(2012년 산학협력단) 석탄재 용출시험 및 사후 모니터링 결과, AS 농도·중금속함량·중금속 용출량·용출액내 비소 농도 등 모든 항목에서 법적 기준치 이내임이 검증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군산항 준설토 활용 계획이 느닷없이 중단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이후 군산항 준설토 1,880만㎥를 새만금 산단 매립에 활용해왔다"며 "하지만 지난해 6월 이후 경기침체 및 분양저조 등으로 군산항 준설토 활용이 일시 중단된 이후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은 군산항 준설 재개를 위해 지속 협의해 왔고, 연내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한 6공구 매립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중부발전(주)은 3공구 대행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화력발전소의 석탄재와 준설토를 혼합해 매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준설토의 경우 군산항 준설토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은 "중부발전(주)의 매립사업 참여는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매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중부발전(주)의 3공구 매립사업 참여에 대해 관련기관 및 지역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두레누리 페스티벌 성료

개최지 은파호수공원 관광객·시민등 5천여 명 찾아

지난 14일 은파호수공원에서 개최된 '두레누리 페스티벌'에 관광객과 시민 등 5천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은파호수공원 순환코스길인 구불5길을 걸으며 은파호수공원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또한 거리마술과 저글링, 통기타 공연, 근대음악 오케스트라인 레인보우 악단의 음악회, 행운 군산 퀴즈대회와 청소년 댄스팀 공연, 직장인 밴드 연주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기며 참여하는 즐거움을 선사했다.

특히 사전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 추진된 클린워킹 캠페인은 많은 학생들이 참가해 구불길을 걸으며 환경 정비활동을 펼치는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페스티벌은 지난 6일 관광객 10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원도심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근대골목길 페스티벌과 함께 군산이 서해안의 관광중심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김성우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군산의 근대문화와 힐링이 접목된 새로운 관광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다"며 "오는 9월 30일 개최되는 2016 군산시간여행축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군산만의 차별화된 관광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어획물 숨겨 운반 하려한 중국어선 검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 관련법률' 위반

어획물 44톤을 조업하고도 이를 숨겨 운반하려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3일 오전 6시 22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72톤급 중국어선(중국대련 선적, 승선원 10명)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붙잡힌 중국어선은 EEZ 내에서 입어가 가능한 허가받은 어선으로, 같은 선단소속의 어선들이 수일간 잡은 고기를 넘겨받아 중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운반선이다.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어선이라 할지라도 한·중 양국이 정한 조업조건(어획량)과 절차를 준수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어선은 같은 선단 소속 유망어선 172척으로부터 삼치 등 44톤을 옮겨 받았음에도 조업일지에는 기록을 전혀 남겨두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에서 밝혀졌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지난 13일 오전 6시 22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0㎞ 해상에서 72톤급 중국어선을 관련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은 우리 EEZ 해역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을 조업하면서 그동안 잡은 고기를 운반선을 통해 중국으로 운반하게 된다"면서 "이 운반선이 어획량을 속여 우리 측에 통보될 경우 제한된 어획량을 초과하여 결국 어장파괴까지 이를 수 있어 앞으로도 어획물 운반선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재정 증대에 효자 역할 '톡톡'

납부율 96% 183억원 납부

군산시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율이 96%를 웃돌아 열악한 지방재정에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해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결과 3416개 법인이 190억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 183억원이 납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동기 납부금액 166억원 대비 10%가 증가한 것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날로 약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시 재정에 효자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지방소득세가 증가된 원인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늘어난데 있다.

실제 주요 법인들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긴축경영으로 법인의 수익이 늘어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관련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인 및 세무대리인에 안내문과 리플렛 발송, 전광판 등을 활용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신고기간 중 법인에게 원활한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을 잘못 신고한 3백여 개의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적 안내를 통해 재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의회, 소나무 벌목따른 장마철 재난 대책수립

군산시의회가 장마철을 앞두고 재선충 소나무 벌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동완 시의원 은 지난 13일 제194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재선충 소나무 벌목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의 경우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타 재선충 소나무 벌목을 핑계로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건강한 소나무까지 무단 벌목해 비난과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선충 소나무를 벌목하면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심한 벌목으로 인해 다가올 장마에 토사와 절개지 부분이 흘러 내려 산사태 등 더 큰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금마농협, 신규 조합원 40여명 대상 농협이용 교육

금마농협(조합장 백낙진)은 신규 조합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최근 금마농협 회의실에서 "협동조합의 이해와 신규조합원의 역할"및"금마농협의 일반현황과 중점추진 과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협동조합과 농협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조합원으로서 농협을 이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협동조합의 이념 및 조합원(주인)의 역할과 농협 조직과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농협의 사업·조직구성 현황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백낙진 조합장은 "어려운 농업환경을 살리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농협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신규 조합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우리농협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명부상의 조합원이 아닌 실질적인 조합원이 되어 주길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